

懸賞設計에 對한 나의 所信

金正澈

懸賞設計의 目的은 참신한 設計案을 얻기 위하여 中지속에 파묻혀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設計案이 유용하고 造形的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그 目的物이 요구되는 기등과 「스페이스」가 충분히 검토되어 거의 완벽에 가까운 資料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요사이 몇건의 公募內容을 보면 皮상적인 규모와 너무도 막연한 자료 (지질, 주위 환경, 예산등)만을 주므로 建築家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金銭적 부담을 강요당하고도 그 개요조차 파악키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됨을 통탄치 않을 수 없다.

懸賞公告를 내기 전에 집행당국이 좀 더 充分한 資料를 만들고 그 建物의 目的하는 意圖를 正確히 表現, 의사 소통을 함으로서 귀중한 노력과 시간을 낭비시키지 않도록 해야겠다. 또한 집행자측은 創作의 어려움을 좀 더 이해하고 작품제작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감안해야 하며 제작에 協조한 賞金과 製作權을 尊重하는 公告를 내도록 해야할 것이다.

3 團體의 設計경기 요강의 제정을 본 차제의 우리 建築界가 좀 더 積極적으로 懸賞 設計문제에 介入해야 할 줄 안다.

우리 建築家는 공모자가 建築創作에 이해가 있고 공모의 基本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가의 여부를 精確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지양하고 확고한 태도로 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부당한 公告가 있을시는 全 建築界의 보이콧은 물론 社會의 輿論化에 總力을 기울여야 하며 啓蒙과 先導의 立場에서 社會的 地位向上에 각자 노력하여야만 建築家가 先進國과 같이 추앙받는 職業人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添言해야할 것은 審査의 公正性和 科學的처리 가 있다.

먼저 審査委員으로부터 推戴받은 분이 懸賞設計의 妥當性을 검토하여 受諾與否를 결정하는 確固한 태도가 있어야겠으며 일단 審査委員을 受諾했을 시는 위에서 指摘한것과 같은 公正한 심사 方法을 끝까지 밀고 나갈 所信을 세워 審査에 임해야겠다.

執行者들의 公募의 美名아래 建築家를 愚弄함은 물론 容納이 되지 않으나, 먼저 우리들 자신 이 이런 愚弄의 對象이 안되도록 賢明한 判斷아래 反省함도 必要하다고 생각된다.